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사상 만세!

조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33호 [주제 제26107호] 주제 107 (2018)년 8월 21일 (화요일)

당의 령도 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황병서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김영환동지, 박성철동지, 오일정동지, 김용수동지, 국무위원회 부부장 김창선동지, 국무위원회 국장 마원춘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현지에서 조선로동당 평안북도위원회 부위원장 리태일동지와 공장의 책임일군들이 맞이하였다.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71년 2월 21일 인민들의 건강관리에서 의료기구생산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에 대하여 일깨워주시면서 현대적인 의료기구 생산을 늘이기 위한 공장을 건설할데 대하여 말기하고 몸소 공장터전을 짐아주시었으며 1972년 4월 10일에는 완공된 공장에 오시어 몸소 준공포를 끌으시고 공장이름을 친히 지어주신 불멸의 명도업적이깃들어있는 공장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혁명사적교양실, 과학기술보급실과 공장의 여러 생선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의료기구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년간 보건부문에서 물질기술적 도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거의나 하지 않고 동면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를 문제시하여 당 제7차대회 이후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비롯한 명도업적단위들을 개건현대화하여 본보기 단위로 꾸밀데 대하여 당에서는 이미 어마어마한 힘을 내려보내는데 오늘 이렇게 서 보니 공장의 문턱부터 시작하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개건현대화진행 중인 공장이 맞긴 맞는지, 당에서 경종을 울린지 벌써 2년이 되어오는데 도대체 무엇을 개건하고 현대화하였는지 알수 없다고 하시면서 매우 우려스럽고 실망하지 않을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공장의 일부 건물들은 2015년에 개건 보수한것으로 보고받았는데 왜 벌써 이렇게 한심하게 되었는지 모르겠다고. 공장의 주인인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공장에 올라가고 암울하게 정상관리를 하지 않으니 이렇게 될수밖에 없지 않는가고 절책하시면서 보이는 그대로 의료기구공장이 아니라 좋게 말하여 농기계창고, 정화기 말하여 마구간을 냉물케 한다고, 의료기구들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이런 정도의 환경과 기술장비수준으로 써는 현대적인 의료기구들을 철대로 생산 할수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보건성 의료기구공업판례국을 비롯하여 보건부문에 맞게 주체화, 현대화가 실현된 의료기구공업 전반에 한변 거울삼을 자는데 보건부문에서 는 벌써 몇해째 지씨 틀어박혀 동면하면서 빙구호만 웨치고있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최근

다고, 공장에 대한 당적지도, 정책지도를 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각히 비판하시였다.

혁명사적교양실도 다른 단위에 비해 잘 꾸리지 못하였으며 특히 과학기술보급실을 꾸린 것만 보아도 과학기술학습의 열풍을 일으킬데 대한 당의 방침을 보건부문 당조직에서는 어떤 사상관찰으로 짐수하고 어떻게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는가를 어설히 알수 있다고, 설비현대화는 둘째치고라도 공장의 환경정비라도 제대로 해놓고 사는 단위가 없다고 주장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보건사업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과학기술사업이라고 말은 많이 하면서도 이 사업이 차효시되고 있다며, 지금 일부 나라에서는 천상을 보면 하나님도 보태주고 도와주어야 할 보건부문에 사회적파제, 사회적부담을 주어 자기 사업을 원만히 할수 없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당의 인민적보건시책을 반대하는 반인민적, 반민족적 행위나 같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과학교육부를 비롯한 당부서들에서 이 공장을 새 세기 요구에 맞게 주체화, 현대화가 실현된 의료기구공업 전반에 한변 거울삼을 받고도 용당한 관심을 들리지 않아 아직까지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개선 현대화하지 못하였는데 중앙당 부서들로부터 당시의 방침집행에 대한 판점과 자세가 흘러먹었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직접 조직하여주신 공장이고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김은 관심을 둘러신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을 의료기구공업에서 선도적역할을 하는 본보기공장으로 둘러들이려고 위대한 수령님의 널리를 풀어드리고 수령님의 명도업적을 후세에 길이 빛내여 나가야 한다고 간곡하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보건부문의 천리를 바라고 날마다 우리 나라 보건부문, 의료기구공업부문을 선도해보라고 신심을 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적절적인 명도의 손길아래 세상에 태어난 의료기구공장을 활용하게 보내시기고 우리 나라 의료기구공업의 새로운 개척의 한마지를 빼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이 공장의 개건현대화사업은 자신께서 직접 맡으시겠다고 하시면서 그와 관련한 관련부문들의 과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보건 산업부들이 주인된 자각을 가지고 공장개건 현대화사업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서야 한다고, 자신께서 보건부문의 천리를 바라고 날마다 우리 나라 보건부문, 의료기구공업부문을 선도해보라고 신심을 주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적절적인 명도의 손길아래 세상에 태어난 의료기구공장을 활용하게 보내시기고 우리 나라 의료기구공업의 새로운 개척의 한마지를 빼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그 경계에 도 그립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를 자기들의 일터에 모시고 공장개건과 관련한 귀중한 가르침을 받아 얻은 묘향산의료기구공장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그 품질을 마음쓰시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숭고한 구상과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당시 계시한 더 높은 현대화목표를 기어이 관철하고 최신식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함으로써 우리 당의 인민적보건시책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보건체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시켜나가기 위한 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고 김영춘동지의 장의식 거행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영결식에 참가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며 인민무력성 총고문인 조선인민군 원수 김영춘동지의 장의식이 20일 평양에서 국장으로 엄숙히 거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영결식에 참가하시였다.

4. 25문화회관 장의식장에서 고 김영춘동지의 명구를 발인하는 의식이 있었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주도곡이 울리는 가운데 고인의 명구가 발인되었다.

고인의 명구를 실은 장갑차는 모티씨풀의 호위를 받으며 신미리에 국립사통을 향하여 떠났다.

비파거리, 하신거리, 편웃동을 비롯한 수도의 거리를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과 수도시민들이 행구차를 바래웠다.

김영춘동지는 혁명의 총대를 얹세계 풀어쥐고 당과 혁명, 조국과 인민을 보위하는 성스러운 부무의 길을 걸으면서 전군에 당의 윤임직령도체계를 세우는데서 뚜

출한 공적을 세웠으며 높은 군사적자질과 지휘능력을 지니고 당의 군사로선판찰에 뛰어난 생의 자족을 남기었다.

인민군장병들과 수도시민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실향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 강한 원칙성과 일의

심, 소랄하고 청렴결백한 품성을 지니고 혁명무역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 공헌한 고인과 영결하는 술품에 잠겨 명구차를 전송하였다.

신미리에 국립사통에서 영결식이 엄숙히 거행되었다.

영결식장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께 무한히 충직하였으며 당의 명도를 발들여 사회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한 투쟁에 모든것을 다 바친 혁명가를 잃은 커다란 비애에 침싸여있었다.

조선인민군 명예의장대가 명구를 향하여 『명구에 들어 총!』을 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과 함께 고 김영춘동지의 명구를 앞세우시고 열사를 오르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특군대장 김수길동지가 애도사를 하였다.

주도곡이 주악되고 조총이 발사되는 가운데 고인의 유해가 안치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당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우 잃은 비통한 심정을 안으시고 고인의 유해에 헌을 염으시였다.

무력기관 책임일군들과 유가족들이 고인의 유해에 훔을 달았다.

화환진정곡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존함을 모신 화환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묘에 전정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의 최후승리의 날을 보지 못한채 애석하게도 우리결을 떠난 김영춘동지를 추모하여 묵상하시였다.

국가장의위원회 성원들, 유가족들, 당, 무력기관 일군들이 고인을 추모하여 특상하였다.

김영춘동지는 비록 서거하였으나 우리 군대와 인민은 일전단심 백옥 같은 충정과 두철한 혁명신념을 지니고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치는데 크게 공헌한 혁명렬사를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애

도

사

오늘 우리는 키다란 술풀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同志과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同志의 충직한 혁명전사이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친근한 혁명전우인 인민무력성 총고문 조선인민군 원수 김영춘동지와 영결하게 됩니다.

한생 혁명의 군복을 입고 당파 혁명,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복무의 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온 김영춘원수동지는 그렇게도 남원하던 사회주의 광건칠위업의 승리와 조국통일의 날을 보지 못한채 성장의 고장을 떠나고 세상 하게도 우리곁을 떠났습니다.

김영춘원수동지와 영결하게 되는 이 시각 우리들은 일편단심 배우같은 충정을 지니고 혁명의 수령을 진절히 헤워하며 인민군대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 수행에 헌신한 공적을 쌓아온 귀중한 혁명가를 잃은 아픔을 금할수 없으며 부단치는 애도의 정을 누를수 없습니다.

김영춘원수동지의 생애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각별한 보살피시 속에서 혁명가의 가장 값높은 삶을 누려온 영광스러운 한생이었으며 수령보위, 혁명보위, 조국보위의 제1선에서 투철한 혁명신념으로 우리 당의 사상과 행동을 충직하게 밟아온 저명한 정치활동가,

유능한 군사가의 빛나는 한생이었습니다.

인민들의 문화정서 생활에 이바지하는 선구자 집단

목

란

광명회

사

를

돌

아

보

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사회주의문화의 창조자, 향유자로 되게 하며 문화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새로운 전통을 전할을 일으켜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려는 우리 인민들의 본심이 현실로 꽂혀져 하여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국화인 무관, 그 생활의 친근한 길동무

우리 인민들은 무관평행회사의 문화미래들을 사랑한다.

『고주공』, 『소년장수』를 비롯한 만화회화와 예술영화, 기록영화들, 우리 인민들에게 최후승리에 대한 신심과 끝장을 통해 주는 화출소품들, 경제각국건설에 이바지하는 과학기술소개전시물과 국내외 체육경기식물, 일상생활에서 만드시 암아야 할 각종 상식을 비롯하여 제작들이 담고 있는 자료의 범위와 내용은 대단히 넓다.

전국각지에 정연하게 갖추어진 문화체육보금당은 남녀로소 누구나 즐겨 찾는 장소들로 되고 있다.

문화체육의 제작과 보금당이 아니라, 이 단위에서 최근간 개발한 새 제품들과 품질오락기제들이 전원천 전시장을 찾는 사람들은 절마다 기술사를 열어 놓면서 창작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페스티벌 시각 효과를 보다 높이면서 대본에 구현된 내용이 희미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동행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면서 풍물연희 회전수레에서 문화기획제작소의 젊은 기술사를 열어 놓았던 창작장을 험하고 있다. 페스티벌 시각 효과를 보다 높이면서 대본에 구현된 내용이 희미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세 기술의 개념이 많은 시일 일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시대는 무단히 발전하고 있으며 어제날의 세대도 오늘에에서는 벌써 같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천가형의 인재와 풍부한 지식자원을 기초로 하는 기술집약형의 기업구조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눈감아살아야 되는 세계에 대한 책임감이 되는 것이다.』

온은 말이다. 새 제품의 개발, 이것은 많은 투자와 함께 어려운 기술제작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문화라고 해야 할

듯길은 이름과 더불어 인민들이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미래제작 및 보금거점으로 강화발전된 평화영화회사!

절제워인들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아래 전면의 자랑찬 행로를 새겨온 이 단위는 오늘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를 적극 창조하고 대내적으로 보급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정명그급의 가르침실에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문화에 활동하고 있다. 그 하나하나는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설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본에 구현된 내용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동행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면서 풍물연희 회전수레에서 문화기획제작소의 젊은 기술사를 열어 놓았던 창작장을 험하고 있다. 페스티벌 시각 효과를 보다 높이면서 대본에 구현된 내용이 희미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세 기술의 개념이 많은 시일 일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시대는 무단히 발전하고 있으며 어제날의 세대도 오늘에에서는 벌써 같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천가형의 인재와 풍부한 지식자원을 기초로 하는 기술집약형의 기업구조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눈감아살아야 되는 세계에 대한 책임감이 되는 것이다.』

온은 말이다. 새 제품의 개발, 이것은 많은 투자와 함께 어려운 기술제작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문화라고 해야 할

듯길은 이름과 더불어 인민들이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미래제작 및 보금거점으로 강화발전된 평화영화회사!

절제워인들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아래 전면의 자랑찬 행로를 새겨온 이 단위는 오늘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를 적극 창조하고 대내적으로 보급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정명그급의 가르침실에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문화에 활동하고 있다. 그 하나하나는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설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본에 구현된 내용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동행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면서 풍물연희 회전수레에서 문화기획제작소의 젊은 기술사를 열어 놓았던 창작장을 험하고 있다. 페스티벌 시각 효과를 보다 높이면서 대본에 구현된 내용이 희미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세 기술의 개념이 많은 시일 일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시대는 무단히 발전하고 있으며 어제날의 세대도 오늘에에서는 벌써 같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천가형의 인재와 풍부한 지식자원을 기초로 하는 기술집약형의 기업구조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눈감아살아야 되는 세계에 대한 책임감이 되는 것이다.』

온은 말이다. 새 제품의 개발, 이것은 많은 투자와 함께 어려운 기술제작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문화라고 해야 할

듯길은 이름과 더불어 인민들이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미래제작 및 보금거점으로 강화발전된 평화영화회사!

절제워인들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아래 전면의 자랑찬 행로를 새겨온 이 단위는 오늘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를 적극 창조하고 대내적으로 보급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정명그급의 가르침실에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문화에 활동하고 있다. 그 하나하나는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설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본에 구현된 내용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동행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면서 풍물연희 회전수레에서 문화기획제작소의 젊은 기술사를 열어 놓았던 창작장을 험하고 있다. 페스티벌 시각 효과를 보다 높이면서 대본에 구현된 내용이 희미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세 기술의 개념이 많은 시일 일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시대는 무단히 발전하고 있으며 어제날의 세대도 오늘에에서는 벌써 같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천가형의 인재와 풍부한 지식자원을 기초로 하는 기술집약형의 기업구조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눈감아살아야 되는 세계에 대한 책임감이 되는 것이다.』

온은 말이다. 새 제품의 개발, 이것은 많은 투자와 함께 어려운 기술제작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문화라고 해야 할

듯길은 이름과 더불어 인민들이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미래제작 및 보금거점으로 강화발전된 평화영화회사!

절제워인들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아래 전면의 자랑찬 행로를 새겨온 이 단위는 오늘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를 적극 창조하고 대내적으로 보급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정명그급의 가르침실에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문화에 활동하고 있다. 그 하나하나는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설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본에 구현된 내용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동행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면서 풍물연희 회전수레에서 문화기획제작소의 젊은 기술사를 열어 놓았던 창작장을 험하고 있다. 페스티벌 시각 효과를 보다 높이면서 대본에 구현된 내용이 희미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세 기술의 개념이 많은 시일 일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시대는 무단히 발전하고 있으며 어제날의 세대도 오늘에에서는 벌써 같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천가형의 인재와 풍부한 지식자원을 기초로 하는 기술집약형의 기업구조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눈감아살아야 되는 세계에 대한 책임감이 되는 것이다.』

온은 말이다. 새 제품의 개발, 이것은 많은 투자와 함께 어려운 기술제작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문화라고 해야 할

듯길은 이름과 더불어 인민들이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미래제작 및 보금거점으로 강화발전된 평화영화회사!

절제워인들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아래 전면의 자랑찬 행로를 새겨온 이 단위는 오늘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를 적극 창조하고 대내적으로 보급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정명그급의 가르침실에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문화에 활동하고 있다. 그 하나하나는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설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본에 구현된 내용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동행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면서 풍물연희 회전수레에서 문화기획제작소의 젊은 기술사를 열어 놓았던 창작장을 험하고 있다. 페스티벌 시각 효과를 보다 높이면서 대본에 구현된 내용이 희미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세 기술의 개념이 많은 시일 일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시대는 무단히 발전하고 있으며 어제날의 세대도 오늘에에서는 벌써 같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천가형의 인재와 풍부한 지식자원을 기초로 하는 기술집약형의 기업구조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눈감아살아야 되는 세계에 대한 책임감이 되는 것이다.』

온은 말이다. 새 제품의 개발, 이것은 많은 투자와 함께 어려운 기술제작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문화라고 해야 할

듯길은 이름과 더불어 인민들이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미래제작 및 보금거점으로 강화발전된 평화영화회사!

절제워인들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아래 전면의 자랑찬 행로를 새겨온 이 단위는 오늘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를 적극 창조하고 대내적으로 보급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정명그급의 가르침실에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문화에 활동하고 있다. 그 하나하나는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설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본에 구현된 내용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동행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면서 풍물연희 회전수레에서 문화기획제작소의 젊은 기술사를 열어 놓았던 창작장을 험하고 있다. 페스티벌 시각 효과를 보다 높이면서 대본에 구현된 내용이 희미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세 기술의 개념이 많은 시일 일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시대는 무단히 발전하고 있으며 어제날의 세대도 오늘에에서는 벌써 같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천가형의 인재와 풍부한 지식자원을 기초로 하는 기술집약형의 기업구조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눈감아살아야 되는 세계에 대한 책임감이 되는 것이다.』

온은 말이다. 새 제품의 개발, 이것은 많은 투자와 함께 어려운 기술제작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문화라고 해야 할

듯길은 이름과 더불어 인민들이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미래제작 및 보금거점으로 강화발전된 평화영화회사!

절제워인들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아래 전면의 자랑찬 행로를 새겨온 이 단위는 오늘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를 적극 창조하고 대내적으로 보급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정명그급의 가르침실에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문화에 활동하고 있다. 그 하나하나는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설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본에 구현된 내용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동행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면서 풍물연희 회전수레에서 문화기획제작소의 젊은 기술사를 열어 놓았던 창작장을 험하고 있다. 페스티벌 시각 효과를 보다 높이면서 대본에 구현된 내용이 희미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세 기술의 개념이 많은 시일 일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시대는 무단히 발전하고 있으며 어제날의 세대도 오늘에에서는 벌써 같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천가형의 인재와 풍부한 지식자원을 기초로 하는 기술집약형의 기업구조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눈감아살아야 되는 세계에 대한 책임감이 되는 것이다.』

온은 말이다. 새 제품의 개발, 이것은 많은 투자와 함께 어려운 기술제작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문화라고 해야 할

듯길은 이름과 더불어 인민들이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미래제작 및 보금거점으로 강화발전된 평화영화회사!

절제워인들의 현명한 명도의 손길아래 전면의 자랑찬 행로를 새겨온 이 단위는 오늘날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문화를 적극 창조하고 대내적으로 보급하여 모든 사람들이 혁명적으로, 문화적으로 살며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교육하고 있다.

정명그급의 가르침실에는 이곳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우리 인민들의 문화정서문화에 활동하고 있다. 그 하나하나는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빛나는 현설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대본에 구현된 내용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동행한 일군의 안내를 받으면서 풍물연희 회전수레에서 문화기획제작소의 젊은 기술사를 열어 놓았던 창작장을 험하고 있다. 페스티벌 시각 효과를 보다 높이면서 대본에 구현된 내용이 희미에 허락하지만 제작들은 이를 힘과 기술로 제작한 창조물들이다.

세 기술의 개념이 많은 시일 일군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시대는 무단히 발전하고 있으며 어제날의 세대도 오늘에에서는 벌써 같은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실천가형의 인재와 풍부한 지식자원을 기초로 하는 기술집약형의 기업구조를 확립하지 않는다면 눈감아살아야 되는 세계에 대한 책임감이 되는 것이다.』

온은 말이다. 새 제품의 개발, 이것은 많은 투자와 함께 어려운 기술제작을 해결해야 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인재문화라고 해야 할

듯길은 이름과 더불어 인민들이 누구나 즐겨 찾는 문화미래

판문점선언리행에 평화와 번영, 통일이 있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나라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숭고한 사명과 책임감을 안고 조선반도평화호흡을 주도하고 있다. 우리의 주도적이며 성의 있는 노력에 의하여 조선반도에는 긴장완화와 평화, 협력의 분위기 가득하고 있다. 북남사이에 대화와 협상, 평화의 물이 얼려고 대외의 차단과 기대와 관심 속에 통일 흥구경기와 도통사통일축구대회 등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거래 누구나 좋게 첫걸음을 뗀 북남관계 국면이 훌륭한 걸림돌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민족의 지향과 시대의 요구에 맞게 북남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평화와 번영, 자주통일의 흐름을 적극 추동해나가자면 판문점 선언을 철저히 리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우리는 전례 조선민족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하루빨리 분별의 장벽을 허물고 조선반도의 대로로 열어나가야 합니다.』

판문점선언은 동강난 민족의 협력과 지역을 갖고 민족적화와 단합, 평화와 통일의 대로로 열어나가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자주통일의 강이다.

반면에 우리 자주와 역사와 친환경문화를 사랑하는 우리 민족이 장장 70여년 동안이나 외세에 의하여 분별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참으로 통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판문점선언이 아말로 온 민족의 의사와 남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당하는 피해와 재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세계적으로 나라와 민족들이 발전과 번영을 적극 지원해나가고 있는 때에 우리 민족이 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 서로 간통하며 대결하는 것은 민족의 통일적발전을 스스로 가로막는 행위이다. 민족의 분열을 더 이상 저지시키는은 암되며 우리 대에 반드시 조국을 통일하여야 한다.

우리 공화국은 불신과 대결로 얼룩진 북남관계의 파국을 끝장내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통일의 새 역사를 씨나갈 예의의 의지에 따라 조선반도 평화와 번영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해왔다. 우리의 새로운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번영의 길을 편히 밟아주고 있는 판문점선언이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 사회의 열렬한 지지와 찬동을 받고 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 약 5억 3,000만원을, 로무현에 대한 무근거 한 조사들을 벌린 사실이 드러났다.

이날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정보원의 전 3차장에 대한 한 차례 판정에 이러한 사실이 드러났다.

2010년 5월부터 8월사이에 이자는 당시 정보원 원장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 있지도 않는 김태중의 비자금주체에 약 1억 600만원의 자금을 소비하였다.』고

6월 남조선《뉴시스》에 의하면 미영박대통령에게 정보원이

막대한 자금을 향진하며 전직 대통령 70여명으로